

남해화학, 농협과 화학비료 공급계약

남해화학이 농협에 화학비료를 공급한다.

남해화학은 최대주주인 농협에 2012년 2771억원의 화학비료를 공급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1월18일 발표했다.

남해화학은 농협중앙회의 자회사로 42.5%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, 2010년 매출 1조1357억6000만원, 영업이익 237억2000만원에 달했다.

<화학저널 2012/01/19>